

인문학문의 글쓰기 경향과 그 반성

신 태 수*

< 目 次 >

- I. 문제 제기
- II. 인문학문의 내포와 외연
- III. 인문학문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들
- IV. 인문학문의 사명과 창조적 글쓰기의 필요성
- V. 앞으로의 연구 방향

<요 약>

이 글은 바로 창조적 글쓰기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다. 창조적 글쓰기는 삶의 본질을 파헤쳐서 이치를 밝히고 창의적 사고를 전개한 모든 글쓰기를 지칭한다. 과거에는 論, 說, 辨, 引, 記, 序, 跋, 策 등과 같은 갈래에서 창조적 글쓰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갈래에서도 창조적 글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論, 說, 辨, 引, 記, 序, 跋, 策 등과 같은 갈래의 성격을 오늘날 논설문, 시사칼럼, 문예평론문, 독서감상문, 기행문, 수필, 자기소개문 등과 같은 갈래에서 이어받았으므로, 과거 인문학문의 전통을 발굴하고 계승해서 이런 갈래들을 창조적 글쓰기에 입각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문학문의 성격과 형성 배경, 인문학문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따지면서 창조적 글쓰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후속 작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Abstract>

THE WRITING TENDENCY OF THE HUMANITIES
AND ITS REFLECTION

Written by Shin, Tae-Soo

This paper is written to suggest the theory and the method in a creative writing. A creative writing denotes all the writings that delve into the essence of life, uncover the law, and unfold a creative thinking. In the past, it was done very briskly in some branches such as 論, 說, 辭, 引, 記, 序, 跋, 策. At present, however, it is not to be seen enough in any branches. Since essays, news commentaries, literary criticisms, accounts of a trip, miscellanies, letters of self-introductions inherit the characteristics from 論, 說, 辭, 引, 記, 序, 跋, 策 of the past respectively,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xcavating the traditions of the humanities and tackling these branches based on a creative writing.

Hence, this paper is intended to make sure the necessity of a creative writing and to get a foothold to help the following work by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backgrounds which were formed and by considering the general problems which appear in writing the humanities.

I. 문제 제기

어느 대학의 교양학부에서나 작문강좌가 설치되어 있다. 작문강좌의 설치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간추려 보면 ‘창의적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의 배양’으

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 목적이 제대로만 구현된다면 더 없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문장 작성 이론을 숙지하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정도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쓰기에는 읽고 생각하는 과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작문강좌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자면 글쓰기 이상으로 읽고 생각하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 읽고 생각하는 과정은 무시한 채 글쓰기만을 강조하면 글쓰기는 단순한 언어의 집합이나 행렬에 지나지 않을 터인데, 현행 작문강좌가 바로 이런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학 관계자들이 실용성의 측면에서 작문강좌를 인식한다는 점이다. 대학의 당면 과제가 학생의 취업이라고 인식하고 취업에 유리한 강의를 실시하기를 요망한다. 둘째, 작문 교재에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할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각 대학에서 나온 교재를 보면, 창의적 사고력과 관련된 내용이 아예 빠져 있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단원에만 할애되어 있어 구색용이라는 인상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교재 전체가 창의적 사고력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서술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터인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집필자가 여럿이고 작성 기간도 짧은 편이다. 내용 편성을 합의에 의존하면서 시일에 급급하다 보니, 異論의 여지가 없는 글쓰기 능력의 배양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첫째 원인과 둘째 원인이 필연적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대학 관계자들이 실용성을 요구한다면, 해당 학과에서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얼마든지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작문 교재를 만들 수 있을 터이다. 해당 학과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올바른 작문 교재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둘째 원인이 첫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업 시간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 대학 신입생만 하더라도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논술 교육을 받은 바 있어서, 글쓰기의 기능에는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추고 있다. 논술책에서 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작문 교재를 대하게 되면 금방 식상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점을 얻기 위해 앓아 있는 학생이나 교재 밖을 벗어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야 된다고 느끼

는 교수나 수업 시간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읽고 생각하기’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해야 한다. 글쓰기가 읽고 생각하기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글쓰기보다 읽고 생각하기에 더 치중해야 된다는 언급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읽고 생각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읽고 생각하기는 글쓰기의 동기 내지는 원인이 되는 셈인데, 현행 작문 교재에서 여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없다고 생각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전통을 발굴하고 계승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인문학문의 글쓰기 전통은 주목에 값한다. 과거 인문학문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문화적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중국과 글쓰기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글쓰기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기도 했으므로, 인문학문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계승해야 한다.

인문학문에서 말하는 글쓰기는 문학적 글쓰기란 좁은 의미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삶의 이치와 원리를 가다듬고 정리하는 학문적 행위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말하면 글쓰기가 전문 학자의 소임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전연 그렇지가 않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노년 등 남녀노소가 자신의 인간적 완성을 위해 삶을 반성하는 거울이요, 지식을 넓히고 그 실천을 모색하는 무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바로 이런 취지를 살려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마음을 다스리는 법, 삶의 이치를 따지는 법을 집중으로 따지고 이를 글쓰기로 연결시키면, ‘창의적 사고력과 글쓰기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작문 강좌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 기존의 작문강좌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창의적 사고력과 글쓰기의 능력을 한꺼번에 도모하는 글쓰기를 특별히 ‘창조적 글쓰기’로 명명하고 기존의 글쓰기와 구별하고자 한다.

창조적 글쓰기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문학문의 글쓰기 경향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안다. 경향 점검과 반성의 행위 중 경향 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글쓰기 경향을 정확하게 짚어야만 반성의 행위도 그 정도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취지에서 필자는 인문학문의 성격과 형성 배경, 인문학문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따지면서 글쓰기 경향을 분석하고, 창조적 글쓰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할 때 본고 이후에 전개할 창조적 글쓰기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다지는 기틀이 마련되리라 믿는다.

II. 인문학문의 내포와 외연

人文學問은 ‘人文’과 ‘學問’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¹⁾ ‘인문’은 ‘사람의 무늬’라는 뜻으로 인간이 삶의 궤적을 인식하고 성찰하면서 생겨났고, ‘학문’은 ‘배우고 묻는다’는 뜻으로 삶의 진리나 이치를 따지면서 생겨났다. 그렇다면 인문학문은 먼저 생겨난 ‘인문’에 뒤에 생겨난 ‘학문’이 붙어서 된 말이다. 인문학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語義만 따지면 두 가지의 설문이 가능한데, 인문이라 하는 학문일 수도 있고 인문에 관한 학문일 수도 있다. 인문이라 하는 학문이라고 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학문의 대상이고 인문에 관한 학문이라면 삶의 조건이라든가 본질이라든가 하는 사안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만 학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양과 서양의 경우가 다르면서 뒤섞이므로 구분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양에서 ‘인문’은 ‘天文’의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天’은 자연 현상이니, ‘天文’은 자연현상의 작용이 된다. 자연현상은 수시로 변하고 아무렇게나 변한다. 비가 내리다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꽃이 피다가도 떨어지고, 나뭇잎이 돋았다가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랜 경험으로 관찰하면 자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이치가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비와 서리가 내릴 때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꽃이 피고 질 때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나뭇잎이 돋아나고 떨어질 때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나약한 인간은 천문의

1) 인문학이라고 하거나 인문과학이라고도 칭하나, 적합하지 않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다른 분야의 학문 명칭과 균형이 맞지 않고, 인문과학이라고 하면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관례에 따라 불인 명칭이어서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조동일,『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 출판부, 1997), 216쪽의 제안에 따라 인문학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학문’은 고래로부터 있어온 유서 깊은 용어이고,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학문을 하고 있으므로, ‘학문’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본다.

위력에 굴복하면서도 천문의 법칙이나 이치를 살펴서 천문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수렵, 어로, 채취를 하던 원시시대보다 정착 생활을 하던 농경시대에는 천문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천문에 대응하는 인문이 본격적으로 대두할 수 있었다.

- 1) 天文의 모습을 잘 관찰하여 계절의 바뀜을 살피고, 人文을 잘 관찰하고 서 천하의 변화를 이룩해야 한다.²⁾
- 2) 인문에서 '文'의 기원은 태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신기한 원리를 짚어 통찰하는 일로는 「역경」 안에 있는 패의 형상이 바로 최초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³⁾
- 3) 대개 천지에는 자연의 '文'이 있어서, 성인이 문을 본떴으나 시대의 운수가 성대하고 쇠약함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文'에도 높고 낮음이 있게 되었다.⁴⁾

인문의 용례를 보면 인문은 1)의 '관찰'이나 2)의 '통찰'로 천문을 모방하는 일이 된다. 천문을 모방하는 역할은 3)과 같이 성인이 맡았는데, 伏羲나孔子가 천문을 모방해서 주역을 만든 것은 그 좋은 예이다.⁵⁾ 성인들은 이에서 멈추지 않고 詩書禮樂을 마련하고 천문의 이치나 법칙을 가르치면서, 천문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했다. 이런 일은 성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성인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3)에서는 성인이 사라진 이후에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서예악이라고 하면 천문을 모방해야 마땅하지만, 성인이 사라진 이후에는 천문과는 상관이 없는 시서예악이 나와서 사람의 성정을 흐리게 하고 풍속을 어지럽게 했다고 한다.⁶⁾ 그렇다고 해서 마냥 세상이

2)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周易』 비괘단전)

3) 人文之文 肇自太極 幽贊神明 易象惟先 (劉勰, 『文心雕龍』 原道篇)

4) 盖天地 有自然之文 故聖人 法天地文 時運 有盛衰之殊 故文章 有高下之異 (徐巨正, 『東文選』 序)

5) 『文心雕龍』 原道篇에 보면, 伏羲가 처음으로 八卦를 그리고 공자가 보완하여 十翼을 기술함으로써 천문을 본뜨는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6)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 聖人 猶天地也 六籍所載 其理之備 其文之雅 蔑以加矣 秦漢以前 其氣渾然 曹魏以降 光岳氣分 規模藻盡 文與理 固蒙塞也 (權近, 『陽村集』, 恩門牧隱先生文集序)

(2) 詩者 性情也 性情發而為聲 烏取華采藻繪之足言也 自道德喪而性情離 文辭勝而正聲微 颷然趨降 淬汰繁亂 愈奇愈新 而大樸殘矣 嘴呼 期可以觀世矣 (金淨, 『沖菴集』, 頽樂 堂詩集跋)

협약해지기만 한 것은 아니다. 뜻 있는 자들이 나서서 천문에 바탕을 둔 인문을 ‘道’라고 하며, ‘道’를 굳건히 세워 천문에 가까워지고자 했기 때문이다.

천문에 바탕을 둔 인문이 사라지면서 ‘道’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의미가 강해졌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시대마다 다르므로 도의 내용도 달라진다. 道의 體는 불변이지만, 道의 用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까닭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능이 분화되면 인간의 할 일도 많아지고, 道의 用도 그만큼 광범위해지게 마련이다. 諸子百家는 저마다 한 분야를 택해서 道의 用이 올바르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목청껏 외쳤지만, 어느 경우에나 道가 제대로 구현된 시기가 없었다.⁷⁾ 道가 현실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道가 강조되면 될수록 인문의 범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도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글이 필요했고, 도를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글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인문이라고 하면 ‘천문의 모방’이라는 본래의 의미에다 載道之器 즉 ‘도를 담는 글’이라는 분화된 의미가 양립하게 되었는데, 시대가 내려가면서 ‘도를 담는 글’로서의 인문이 위세를 얻었다.

‘도를 담는 글’로서의 인문은 스스로 정체성을 갖추느라고 ‘천문의 모방’으로서의 인문이 하던 역할까지 떠맡았다. ‘천문의 모방’이 어째서 가능한지를 따져서 인간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줄곧 시도한 결과, 心性에 대한 論辯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했고, 知行合一을 부르짖는 道學이나 實學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인문은 따지고 캐내고 공론화하는 체질을 무기로 삼기에 이르렀고 인문이 곧 학문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다시 말하면 인문이 ‘도를 담는 글’로 거듭나면서부터 인문은 학문이 되었다. 인문 가운데 한 부분이 학문이 아니고, 학문 가운데 한 부분이 인문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인문학문의 범위는 무척이나 넓다. 실천을

(3) 秦漢以降 土不講道 文與道 遂裂而爲二物 雖或有 以文鳴者 皆浮華駭雜之爲尚 而無復明 道之實矣 (李珥, 《栗谷集》, 文策)

7) 孔子는 「論語」에서 “朝聞道 夕死可矣(里仁)”라고 하거나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 周(八佾)”고 하거나 “久矣 吾不復夢見周公(述而)”이라고 하여, 夏·殷·周 三代 이후부터 道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후대의 유학자들은孔子가 지적한 관례에 따라 세상에 道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관점을 취했다.

전체로 도를 담는 글을 쓰거나 도를 염두에 둔 사고를 하면 무엇이나 인문학문이 될 수 있다.

동양에서 인문학문의 범위가 광범위하듯, 서양에서도 인문학문이라고 하면 초기에는 그 범위가 아주 넓었다. 삶에 유용한 분야를 인문학문이라고 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용한 분야를 포함시키다 보니 인문학문의 범위가 자꾸만 늘어났다. 인문학문을 뜻하는 희랍시대의 *encyklios paideia*와 로마시대의 *artes liberales*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법학, 수사학, 변증법뿐만 아니라 선술, 기하, 천문학, 건축학, 의학 등이 모두 인문학문의 범위에 포함되었다.⁸⁾ 중세시대에는 인문학문이 위축되기는 했어도 범위에는 그다지 변동이 없었는데, 유용성이라는 특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러 인문학문에는 한 차례 변동이 있었다. 인문주의자들이 그리스·로마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 아래 *studia humanitatis*를 결성하면서, 유용성 이외에 인간성의 탐구와 해방이라는 특성을 인문학문에다 하나 더 부여했기 때문이다.

인간성의 탐구와 옹호라는 특성이 인문학문에 부가되었다고 해서 동양의 인문학문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동양에서는 천지자연의 작용을 연구하는 데서 인문학문이 비롯되므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추구하는 정신이 강하다고 한다면, 서양에서는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서 인문학문이 비롯되므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추구하는 정신이 개입되기 어려웠다. 인간성의 탐구와 옹호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유용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천인합일을 추구하는 동양의 인문학문과는 본질적으로 그 궤를 달리한다. 따라서 유용성의 기준이 바뀌거나 사회적·정치적 목표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인문학문의 성격이나 범위에 변동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다. 르네상스시대 이후 실증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문학문이 사회학문과 자연학문으로 분리·독립된 것은 바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인문학문에서 사회학문과 자연학문이 분화되어 나가자 학문의 판도에는

8) 이에 대해서는 신귀현, 서구의 전통사회와 인문학, 「새로운 인문학을 위하여」, (백의, 1993)와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철학,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현대적 의의」, (영남대 출판부, 1990)에서 거듭해서 논한 바 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가 고도화·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로가 가장 많았던 자연학문은 학문의 왕좌에 오르고, 그 뒤를 이어 사회학문이 빨빠르게 영광의 자리에 동석했지만, 인문학문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자연학문과 사회학문과는 달리 유용성의 측면에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문학문은 자연학문의 이념과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입지를 다져야 했는데, 그럴수록 인문학문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부조화만을 느낄 뿐이었다.⁹⁾ 물론 인문학문 자체 내에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철학부분에서 비판적 이성의 원리를 재구성하고 인문학문의 위상 회복을 꾀했으나,¹⁰⁾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면서 그 성과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니 동양의 인문학문과 서양의 인문학문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초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고, 동양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추구하고 서양에서는 유용성을 추구한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나타난 우연적인 현상일 뿐이고, 차이점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상이한 데서 생겨난 필연적인 현상이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 문학도 선진문화에서 후진문화로 전파되게 마련이다. 동양과 서양은 서로 서로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각기 다른 선진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니, 상호 교섭이 이루어져야 순리에 합당하다. 기술분야는 서양이 앞서고 정신분야는 동양이 앞선다. 기술분야의 요체인 자연학문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파되어야 하겠고, 정신분야의 요체인 인문학문은 당연히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9) 이런 현상에 대해 이성원, 인문학의 특성, 인문학의 위기,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 출판부, 1995), 5쪽에서는 “상대론과 회의주의적 색채”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1990)와 신중섭, 「포퍼와 현대의 과학」, (서광사, 1992)에서 이에 관한 동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참고 가 된다. 이 책에 의하면 포퍼와 쿤의 논쟁, 하버마스와 푸코의 논쟁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이성과 합리성의 확립 방안, 의사소통적 합리성, 해석학의 제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인문학문의 위상 정립과 맞물려 있어 흥미롭다.

현재의 사정은 그렇지가 않다. 기술문명에서 개가를 올린 서양의 자연학문이 동양으로 전파되면서 자연학문뿐만 아니라 인문학문의 영역에까지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인문학문에서 분화된 자연학문이 자신의 모태인 인문학문을 압도하더니, 이제는 바다를 건너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양의 인문학문마저 압도하고 있다. 동양의 인문학문에 전에 없이 기능성, 유용성이 강조된 것이 그 단적인 증거가 된다. 기능성, 유용성이 강조되면 양적이고 검증 가능한 대상만이 살아남을 전망이다. 오랜 세월을 거쳐 축적된 정신문화는 머지않아 계측 가능한 분야만 살아남고 그 나머지는 소멸하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동양의 인문학문이 저력을 결집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III. 인문학문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들

인문학문은 이치를 따지고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학문이므로, 이런 취지에 입각한 글쓰기는 모두 인문학문의 글쓰기가 된다. 인문학문의 글쓰기는 그 범위가 인문학문의 범위만큼이나 넓다. 체계와 방법을 앞세우는 학문적 글쓰기뿐만 아니라 체계와 방법을 구사하지 않는 창작적 글쓰기까지 모두 인문학문의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인문학문의 글쓰기가 이처럼 광범위한데도 현재 상황은 그렇게만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학문적 글쓰기만을 인문학문이라고 하고 창작적 글쓰기는 인문학문이 아니라고 한다. 창작적 글쓰기가 왜 소외되는가? 창작적 글쓰기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가? 문제의 발생에는 서구의 영향도 있을 터이고, 인문학문 자체 내의 요인도 있을 터인데, 창작적 글쓰기의 기본 성격부터 살피고 문제를 해명해 보기로 한다.

창작적 글쓰기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생각을 표출하는 글쓰기이다. 창의적 생각을 표출하는 글쓰기라 해도 일정하지 않다. 작가와 현실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할 때 현실에 대한 심미안이 위주가 되는 글도 있고, 현실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비판적 이성을 드러내는 글도 있다. 시, 소

설, 독서감상문, 기행문 등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논설문, 칼럼, 평론문 등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는 현실 접근의 방법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다를 바 없다. 어느 글이나 ‘사람다움’에 대해 다루고 있고 ‘삶의 진리’를 캐내고 따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창작적 글쓰기 또한 ‘사람다움’과 ‘삶의 진리’를 다루는 학문적 글쓰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아래의 제시문은 바로 이런 면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와 학문은 한 가지 일인가? 의리에 대해 찾아 궁구하고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여 이치를 깨달아 스스로 얻는 바가 있는 것은 학문이고, 사물과 접촉하여 흥을 부치며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을 깃들여 성음에서 펴내는 바가 있는 것은 시이다. 허와 실이 다름이 있으니, 어찌 하나로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시와 학문은 과연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란 말인가? 정의가 하나로 융회된 것이 학문이 되고 성정이 드물게 펼쳐지는 것은 시가 된다. 생각이 삿됨이 없는 데 있고 성음이 자연과 하나 되면 시도 또한 학문인 것이니, 어찌 갈래를 나누어 둘로 볼 수 있을 것인가!!¹¹⁾

시와 학문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다. 시와 학문이 이루어지는 바를 따지고 있으니, 시를 창작적 글쓰기라 하고 학문을 학문적 글쓰기라 해도 무리가 없다. 학문적 글쓰기인 학문이 인문학문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창작적 글쓰기인 시가 인문학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인용문의 필자는 ‘이치’를 위주로 글쓰기를 하면 학문이고 ‘흥’을 위주로 글쓰기를 하면 시라고 하여, 시와 학문이 접근 방법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일단 밝혔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방향에서 같아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생각이 삿됨이 없고 성음이 자연과 하나가 되면 시가 곧 학문이 된다고 했으니, 경우에 따라 시가 학문이 될 수 있음을 힘써 밝혔다 하겠다. ‘성음’은 표현이고 ‘자연’은 대상이라고 볼 때, 대상을 적실하게 파헤치고 가감없이 표현한다면 시가 곧 학문이 되는 셈이다.

11) 詩與學 為一件事乎 研窮乎義理 體認於身心 有所理會而自得者 學也 觸物而寄興 因事而寓懷 有所感發於聲音者 詩也 虛實有異 烏得爲一 然則詩與學 果爲兩件事乎 (洪聖民, 「拙翁集」, 以學爲詩說)

시를 학문으로 보는 관점은 유학자들의 논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유학자들은 한결같이 시를 小技라 하면서도 性情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족히 경청할 만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가 곧 학문이라는 언급을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가 학문과 같은 반열이라는 점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유학자 중에서 영향력이 큰 李滉도 “시는 性情에 바탕을 두므로 體와 格이 있다”고 했으니,¹²⁾ 다른 유학자의 경우야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유학자들이 性情이라고 할 때, 물론 情보다는 性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타고난 理를 心에 견주어 性이라 하고 性의 구현을 情이라 하는데, 性은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고 情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情을 통해 비로소 性을 알 수가 있다. 情이 진실하면 性의 반영이고 情이 진실하지 못하면 性의 반영이 아니라고 판정하곤 한다. 性을 반영한 情의 글만이 학문이 되기는 하지만, 창작적 글쓰기인 시가 인문학문에 들어간다는 점은 분명해진다.

과거 인문학문의 범주 속에 창작적 글쓰기가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작적 글쓰기는 근래에 들어와서 인문학문에서 빠진 것임에 틀림없다. 과거 인문학문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글쓰기가 없었기 때문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창작적 글쓰기 중에는 과거 인문학문의 관례를 따른 경우가 없지 않음에도 창작적 글쓰기의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인문학문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¹³⁾ 이렇게 보면 인문학문 자체의 까다로운 조건이나 기준 때문에 창작적 글쓰기가 배제되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해답은 외부에서 찾든지 근래 인문학문의 풍토 자체 내에서 찾든지 해야 한다. 오늘날 인문학문의 위기를 논하는 자들이면 누구나 서구로부터 유입된 자연학문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위기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지적은 분명히 타당하고 또 사실이 그렇기도 하므로, 일단 자연학문을 눈여겨 보기로 한다.

12) 夫詩雖末技 本於性情 有體有格 (李滉, 「退溪全書」, 與鄭子精)

13)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글의 형식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따라 인문학문의 학술논저로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심지어 계재지의 성격에 따라 학술논저냐 아니냐가 판가름나기도 한다. 글의 형식이나 계재지의 성격에 의거해서 학술성을 판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자연학문은 객관적·실험적 검증을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며, 방법론의 구축을 학문의 과제로 삼는다. 방법론이 곧 학문일 수 없음이 자명한데도, 과학 기술 분야에서 방법론이 일구어낸 성과가 위낙 다대하기 때문에, 방법론이 학문으로 둔갑해도 거부감을 갖기가 어렵다. 방법론이 앞서고 실상이 뒤따라 가는 자연학문의 입장에 서면, 실상이 앞서고 방법론이 뒤따라 가는 인문학문은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엉성해 보이기도 한다. 자연학문이 학문의 패권을 장악하고 인문학문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자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각 대학의 인문학문은 인기를 잃었고, 수강 인원의 미달로 강좌마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인문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방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잘못된 방책이 인문학문의 위기를 더욱 부추겼다. 인문학문도 자연학문처럼 엄밀성,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전제 아래 자연학문과 같은 방법론을 모방하거나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인문학문의 위기는 그 원인이 간단히 지적될 수 있다. 첫째로 서구에서 유입된 자연학문의 방법론 때문이고, 둘째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이끌려 가는 현대 인문학문의 나약한 체질 때문이다. 첫째 원인에다 둘째 원인이 결부되면서 인문학문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 거의 모든 글쓰기를 인문학문으로 인정하던 관례가 깨어지고 논문과 같이 방법과 체계를 강조하는 글쓰기만을 인문학문이라고 하는 관례가 새롭게 생겨났다.¹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더 깊은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 법이다. 논문만 학문이라고 하면서부터 논문을 기준으로 학문/비학문을 구분

14) 김영민, *논문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1997)에서도 이런 현상을 진단하고 있다. 저자는 이른바 논문중심주의가 '형식숭배주의'의 일종이라고 비판하면서 과학주의에 물든 근대성의 논리를 벗어나 '잡스러운 글쓰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저자의 언급에 대해서 필자는 동감하는 면도 있고, 동감하지 않는 면도 있다. 논문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대안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는다. 우선 '잡스러운'의 어의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으로 '잡스러운 글쓰기'의 범위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잡스러운 글쓰기'가 우리 인문학문의 전통과 별반 연관이 되지 않기에 문제이다. 우리 인문학문의 전통과 관련 지워 대안을 보다 치밀하게 제시했다라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고, 논문 쓰기에는 온갖 정성을 기울이다가도 창작적 글쓰기에는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생긴 것은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불러온 경우가 된다.

창작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곤 한다. 자신의 창작적 글쓰기가 비학문이라는 딱지를 받는 데 슬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글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데 안도감을 갖는다. 안도감이 지나치면 큰 화를 부른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아무렇게나 글을 써도 책 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실상을 멀리 하고 목소리만 높인다면, 인문학문과는 거리가 먼 ‘사이비 글쓰기’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태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창작적 글쓰기가 인문학문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고 해도, 자연학문의 관점에 의거할 때만 인문학문이 아닐 따름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문학문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창작적 글쓰기가 인문학문의 범주에 들어 있는 셈이다. 자연학문의 관점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실상을 벗어나거나 ‘삶의 진리’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인문학문의 관점에서도 인문학문이 될 수 없는 창작적 글쓰기가 되고 만다.

근래에 들어 인문학문의 관점에서도 인문학문이라고 할 수 없는 창작적 글쓰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실상과는 무관한 논리가 창작적 글쓰기의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어, 창작적 글쓰기 전체의 위상을 위태롭게 한다. 만약 사이비 글쓰기가 정착되더라도 한다면 인문학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전망이다. 글쓰기 현장에 사이비 글쓰기만이 난무할지도 모르고, 사이비 글쓰기가 과거의 전통을 끌어다 붙여 인문학문으로 진입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벌써 생각나는 대로 글쓰기를 해놓고, 과거의 전통을 운운하며 자신의 글쓰기가 인문학문의 글쓰기라고 강변하는 논자가 생겨나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낸다. 이렇게 볼 때 현대 인문학문의 主敵은 서구에서 유입된 자연학문이 아니요 창작적 글쓰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이비 글쓰기이다. 인문학문이 그 자체에서 기생하는 주적을 찾아내어 과감하게 척결할 때, 본연의 위상을 온전히 지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 방식을 혁신해서 사이비 글쓰기를 일소하고 학문의 범주에 들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여러 글쓰기들을 다시 제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현재 사이비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위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단을 올바르게 보고 영향력을 차단하는 시도부터 해야 한다. 사이비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방법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서구에서 최근 유행하는 방법론이 첨단 학문이라 여기고 설익은 논의를 펼치곤 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서 기존의 논의를 아무렇게나 바꾸어 놓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런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효녀이던 심청이가 이기주의자로 둔갑할지도 모르고 탐관오리이던 변학도가 본능에 충실한 자로 둔갑할지도 모른다. 실상은 보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는 자들이라면 이런 과오를 언제든지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

이 정도로 짚어보더라도 사이비 글쓰기의 폐단은 분명히 드러난다. 사이비 글쓰기는 글쓰기와 학문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시류에 영합하는 '한탕주의'를 선도하고 있다. 사이비 글쓰기의 폐단을 일소하고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창작적 글쓰기의 위상을 명실공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의거해서 실상을 보기보다는 실상에 맞추어 방법론을 내 놓아야 하고 글쓰기와 철학을 별개로 보지 말고 양자를 함께 일치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창작적 글쓰기가 인문학문에서 배제된 것이 외부 요인이 아닌 자체 내의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글쓰기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IV. 인문학문의 사명과 창조적 글쓰기의 필요성

앞에서 짚어 보았듯이 인문학문의 글쓰기가 잘못된 데는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이 더 크다. 서구의 풍조에 잘못 대응하는 데서 인문학문의 글쓰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해법을 서구에서 찾을 수는 없다. 우리 인문학문의 전통에는 오늘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갈래로 널려 있으므로, 인문학문의 전통을 면밀하게 살펴서 적절한 해법을 추

출해 내야 한다. 혹자는 창작적 글쓰기를 곧 바로 인문학문에 집어 넣으면 되는 일이 아니냐고 할 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창작적 글쓰기의 배제는 글쓰기 문화의 구조적 모순 때문임을 감안할 때, 이런 모순을 용시하는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범고창신의 자세로 인문학문의 전통을 살펴서 오늘날의 인문학문 전체를 쇄신해야 창작적 글쓰기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다.

과거의 인문학문은 삶의 모든 문제를 캐내고 해결하는 데 소임을 다했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문학을 이야기했고, 시속의 폐단을 거론하면서도 삶의 이치를 내세웠고, 자연현상을 규명하면서도 세계관의 의의를 논파했다. 소설담당총이 「임진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면서도 허구적 진실을 가미함으로써 역사가 곧 문학이 될 수 있도록 했고,¹⁵⁾ 朴趾源이 「熱河日記」의 壯觀論이라 할 수 있는 글에서 명분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장관을 바로 보지 못하는 시속의 폐단을 지적함으로써 뚱덩이, 기와조각과 같은 사소한 것이 장관일 수 있는 이치를 내세웠고,¹⁶⁾ 洪大容이 「醫山問答」에서 地轉說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華夷論의 世界觀을 뒤흔들어 놓은 것¹⁷⁾이 그런 예이다. 이처럼 과거의 인문학문에서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삶과 연관시켰다. 학문의 분화는 있었지만, 삶의 문제를 따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인문학문이 맡았기에 인문학문이 학문 가운데서 제왕 노릇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인문학문의 역할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절실히 요구된다. 자본이나 기술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제 논리가 삶의 전반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써 생긴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의 고갈 현상도 경제 논리에서 비롯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보다는 문서를 더 중시하고 정신보다는 물질을 더 중시함으로써 생긴 인간 소외 현상도 경제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문제를 자연학문이 해결하

15) 신태수가 임진록의 인물형상과 현실주의적 성격, 「하충영옹소설의 역사적 성격」, (아세아문화사, 1995)에서 임진록이 역사이면서 문학일 수 있는 근거를 소상히 다룬 바 있다.

16) 朴趾源, 「熱河日記」 卷3 騰汎隨筆, 7월 15일(辛卯)

17) 洪大容, 「湛軒集」 卷4

기는 어렵다. 結者解之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학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할 터이고,¹⁸⁾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아질 터이다. 인문학문이 사회학문과 제휴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경제논리를 대신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¹⁹⁾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런 역할을 감당할 학문은 인문학문뿐이라는 생각을 인문학문에 종사하는 사람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일은 인문학문에 종사하는 특정인 몇몇이서 감당할 수는 없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수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자면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모두가 토론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 과거의 인문학문에서는 토론문화라 할 수 있는 풍토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四端七情 문제를 놓고 이황과 기대승이 오랜 세월에 걸쳐 토론을 전개한 것이나 人物性同異 문제를 놓고 이간과 한원진 그리고 그 계열에 속하는 선비들이 지속적으로 토론을 전개한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토론의 장점은 크다. 잘만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의 이론을 좀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론을 보다 확실하게 가다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자면 체면과 나이와 직위를 초월하는 풍토가 갖추어져야 한다. 과거의 인문학문에서는 바로 이런 풍토를 갖추었기에,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인문학문이 학문으로서 제 구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관점만 무성하고, 토론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상은 잘 보지 않고 관점만 제시하다 보니, 관점은 실상과 멀어지고 하찮은 문제로 감정 싸움을 하기 일쑤이다. 어떤 시각이든 한정된 관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택하지 않은 관점,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연학문에서 발견한 원리나 법칙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학문에서 개발한 논리나 패러다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출

18)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 김명자·김건 역, (두산동아, 1992), 46 ~ 61쪽 참고.

19) 이런 관점을 대표하는 논의라면 박이문, 경제 위기와 생태학적 위기, 「자연, 인간, 언어」, (철학과 현실사, 1998)를 들 수 있다.

수록 토론이 알차게 되기 때문이다. 토론은 반드시 대면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글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²⁰⁾ 글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논쟁거리를 부각시켜서 독자가 이의를 제기하도록 만들면 토론이 가능해진다. ‘열린 토론’이 열린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고 열린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보니 오늘날의 인문학문은 과거 인문학문의 풍토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인문학문의 풍토를 되살리는 것이 오늘날 인문학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뜻이요 사명이다. 서구 르네상스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리이스의 전통을 전범으로 삼았듯이, 우리도 현재의 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거 인문학문의 전통을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야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문이 시속을 반영한다고 볼 때,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다만 오늘날에 알맞은 인문학문을 일구기 위해 법고장신의 자세가 필요할 뿐이다. 즉 실상에 의거해서 치열하게 따지고 열린 토론을 전개하며 토론한 바를 글쓰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과거 인문학문의 전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를 ‘창조적 글쓰기’라 지칭하고, ‘창조적 글쓰기’를 실질적으로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자 한다.

창조적 글쓰기는 특정한 갈래 명칭이 아니고 글쓰기의 요건을 일컫는 명칭이다. 글쓰기가 창조적이기 위해서는 1) 삶의 본질을 파헤쳐야 하고, 2) 이치를 따져야 하고, 3) 창의적인 사고를 표출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에 입각한 글쓰기이면 모두 창조적 글쓰기의 범위로 들어온다. 즉 논문, 논설문, 칼럼, 평론문, 독서감상문, 기행문, 수필, 자기소개문, 시, 소설의 갈래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갈래의 성격이 일정하지는 않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시와 소설의 경우는 주로 허구적 상상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1)은 갖추기가 쉬워도 2)와 3)을 갖추기는 어렵다. 논문의 경우는 일정한 형식을 지켜야 하고 초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2)와 3)은 갖추기가

20) 글 속 토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동일 교수가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1993), 23 ~ 25쪽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 출판부, 1997), 27 ~ 28쪽에서 거듭해서 역설한 바 있다.

쉬워도 1)을 갖추기는 어렵다. 논설문, 칼럼, 평론문, 독서감상문, 기행문, 수필, 자기소개문의 경우는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고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을 고루 갖추기가 쉽다. 창조적 글쓰기라면 당연히 논설문, 칼럼, 평론문, 독서감상문, 기행문, 수필, 자기소개문의 쪽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논설문, 칼럼, 평론문, 독서감상문, 기행문, 수필, 자기소개문이라고 할 때, 갈래 명칭은 과거에 없었지만 각 갈래의 글쓰기에 담긴 내용은 과거에도 있었다. 과거 인문학문의 글쓰기 방식에 論, 辭, 說, 引, 記, 書, 序, 跋, 策 등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런 글쓰기 방식을 분류하면 논설문이 되기도 하고, 칼럼이나 평론문이 되기도 하고, 독서감상문이 되기도 하고, 기행문이 되기도 하고, 수필이 되기도 하고, 자기소개문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論, 辭, 說, 引, 記, 書, 序, 跋, 策 등의 글쓰기 방식을 인문학문의 주된 글쓰기 방식으로 애용했듯이,²¹⁾ 오늘날의 논설문, 시사칼럼, 평론문, 독서감상문, 기행문, 수필, 자기소개문 또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인문학문의 목적이 '사람다움'에 대해 다루고 '삶의 진리'를 캐내는 작업이라고 볼 때,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동원되는 논설문, 시사칼럼, 평론문, 독서감상문, 기행문, 수필, 자기소개문이야말로 논문의 글쓰기 못지 않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V. 앞으로의 연구 방향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가 앞으로 전개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설문, 시사칼럼, 평론문, 독서감상문, 기행문, 수필, 자기소개문을 창조적 글쓰기에 입각해서 다루되, 삶의 본질을 파헤치고 이치를 따지며 창의적인 사고를 가다듬는 방법 제시에 최대의 역점을 둘 작정이다. 그렇다고

21) 어느 文士의 문집을 보더라도 論, 辭, 說, 引, 記, 書, 序, 跋, 策 등이 있고, 다른 글쓰기와 비해 담긴 작품 수도 많은 편이다. 글의 형식이 자유롭고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래의 글쓰기를 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적으로 논설문, 칼럼, 평론문, 독서감상문, 기행문, 수필, 자기소개문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논문, 시, 소설 또한 창조적 글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으므로, 여전히 주목을 요한다. 논문 중에서도 자기 혁신을 피해 논설문에 가까워졌거나 시, 소설 중에서도 기행문이나 자기소개문에 가까워졌거나 한 경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고금의 글쓰기 방법과 이론을 따져서 창조적 글쓰기의 방향을 모색하고,
- 2) 철저한 문제 의식, 토론 서술의 방식, 올바른 표현 방법이 창조적 글쓰기의 요건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 3) 논설문, 시사칼럼, 문예평론문, 독서감상문, 기행문, 수필, 자기소개 문의 작성 방법을 창조적 글쓰기에 입각해서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일일이 제시함으로써, 창조적 글쓰기가 이론과 방법의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창조적 글쓰기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가 이론과 방법을 강의만 하고 만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창조적 글쓰기에 대한 해설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명실공히 창조적 글쓰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 교수는 강의 내용과 연관되는 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은 교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창조적 글쓰기가 이치를 캐내고 열린 토론을 전개한 다음 이를 글쓰기로 연결시키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창조적 글쓰기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이다. 교수와 학생이 기坦 없는 의견을 주고받고 글쓰기의 방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때, 비로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참 고 문 현

『論語』

『周易』

劉勰, 『文心雕龍』

權近, 『陽村集』

金淨, 『冲菴集』

朴趾源, 『熱河日記』

徐巨正, 『東文選』

李珥, 『栗谷集』

李滉, 『退溪全書』

洪大容, 『湛軒集』

洪聖民, 『拙翁集』

김영민, 논문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민음사, 1997)

박이문, 경제 위기와 생태학적 위기, 『자연, 인간, 언어』, (철학과 현실사, 1998)

신귀현, 『새로운 인문학을 위하여』, (백의, 1993)

-----,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현대적 의의』, (영남대 출판부, 1990)

신중섭, 『포퍼와 현대의 과학』, (교보문고, 1990)

신태수, 임진록의 인물형상과 현실주의적 성격, 『하충영웅소설의 역사적 성격』, (아세아문화사, 1995)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1990)

이성원, 인문학의 특성, 인문학의 위기,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 출판부, 1995)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 출판부, 1997)

-----,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1993)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 김명자·김건 역, (두산동아, 1992)